

#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사랑의 사회적 조건과 작가의식\*

안창수\*\*

|| 차례 ||

- I. 머리말
- II. 시에 나타난 사회의식
- III. 사랑의 사회적 조건
- IV. 작가의식
- V. 맺음말

## 【           】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비극적으로 종결되기까지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스스로에게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이생규와 최소저가 만나게 된 동기와 경위가 김시습과 세종 임금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과정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의의 세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회적 폭력에 대해 최소저가 절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맞서게 함으로써 세조의 정변에 맞서 세상에 대해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절개를 지키려 했던 김시습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생규가 불의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과 이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하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통해 세조의 정변으로 사회적 폭력이 개인의 삶을 유린하는 현실의 질서와 이것을 보고도 방관하고 있는 하늘 모두에 대해 반발하고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그리고 이생과 최소저의 비극적 사랑이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하여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고 세상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제어 : 사회적 의미, 규범적 질서, 절의, 사회적 폭력, 현실의 질서

## I. 머리말

<이생규장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만복사저포기>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애정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두 작품에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남녀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랑의 당사자인 두 사람만이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의미만이 문제가 된다. <만복사저포기>에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만복사저포기>가 외부 세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남녀의 만남과 사랑이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외부 세계, 특히 적대적인 외부 세계가 개입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리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고통스럽게 자신들의 사랑을 꾸러갈 수밖에 없다.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소저는 세 번에 걸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1) 안창수,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애정의 의미와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7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12, pp.413-456.

이것은 그들 사이에 적대적인 외부 세계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이상 그들만의 내밀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세계에 노출되어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영위되게 된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생규장전>의 사회적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세 부류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작품의 내용을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대응시켜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이른바 역사 환원주의로 불려지는<sup>2)</sup> 일련의 성과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sup>3)</sup> 세조의 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금오신화』 창작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과 대응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 있으므로 역사적 사건이 작품화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머무르고 있을 뿐 사실의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는 작품에 나타난 유교적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이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sup>4)</sup> 유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조의 정변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2)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231.

3)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 신아사, 1965, pp.604-605.

설성경,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pp.86-88.

곽정식·이복자, 『이생규장전의 우의적 고찰』, 『인문과학논총』8집,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pp.4-8.

4) 김일렬, 『금오신화의 작품구조』,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pp.19-21.

이상규, 『이생규장전의 갈등구조와 작가의식』, 『어문론집』35집, 민족어문학회, 1996, pp.330-338.

김창현, 『『금오신화』, 이생규장전의 비극성과 그 미학적 기제』, 『은지논총』28권, 은지학회, 2011, pp.162-164.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불의에 맞서 절의를 지키려 했던 김시습의 행위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이념을 주제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동반하게 되므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셋째는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을 폭넓게 찾아보려는 것이다. 당시의 질곡적인 사회 현실과 도덕규범에 대한 저항을 작품화한 것으로 보거나,<sup>5)</sup> 청춘남녀의 욕망을 유가적 이념 속에 가두어두려는 현실의 질서를 비판하고,<sup>6)</sup>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욕망조차 억누르는 유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으로<sup>7)</sup> 보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김시습이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 현상을 고발하거나 비판하고 유교적 윤리의식이나 도덕을 드러내기 위해 <이생규장전>을 창작했다는 입장에 선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김시습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김시습은 <이생규장전>에서 객관적인 사회 현상, 즉 세조의 정변과 같은 역사적 사건 등을 끌어와서 작품의 소재로 삼았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체험을 작품화 했을까? 객관적인 사회 현상을 소재로 삼았다는

김위경, 「17세기 독서물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어문론총』59호, 한국문헌언어학회, 2013, pp.241-244.

5) 정학성,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작품세계와 전기 미학에 대한 재성찰」, 『고전문학연구』44권, 한국고전문학회, 2013, pp.254-263.

6)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20권,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16-31.

7)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결혼과 절사(節死)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p.321.

입장에서 볼 때, <이생규장전>은 단종 임금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관점이다.<sup>8)</sup>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려 했던 최소저의 행위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는 모두 남녀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는 입장에 선다면 <만복사저포기>도 단종 임금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을 다룬 작품이어야 한다.<sup>9)</sup> 그러나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의 인물과 사건 등을 단종이나 현덕왕후, 사육신을 비롯한 신하들과 대입시킨 다음 단종 임금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두 작품의 의미가 변별되지 않는다. 문제는 김시습이 무슨 까닭에 단종 임금의 비극적 최후나 신하들의 충성을 두 작품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는가 하는 것이다. 단종 임금의 최후나 신하들이 보여주었던 충성의 서로 다른 점을 다루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김시습 생존 당시 단종 임금의 비극적 최후나 신하들의 충성에 대한 해석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고, 김시습이 이것을 두 작품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는 입장에 선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밝혀져야

---

8) 정주동, 앞의 글, pp.604-605.

설성경, 앞의 글, pp.87-88.

곽정식·이복자, 앞의 글, pp.3-15.

김창현, 앞의 글, pp.160-162.

9) 실제로 아래의 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정주동, 앞의 글, pp.537-540.

이복자, 『만복사저포기의 우의성 고찰』, 『새국어교육』65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pp.356-369.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생규장전>이 김시습 자신의 체험을 작품화 한 것이라고 보면 보다 나은 해답이 도출되어 진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모두 김시습 자신의 삶의 체험을 작품화 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래서 <만복사저포기>는 고아로서 불우하게 살았던 김시습 자신의 어두운 삶의 체험을,<sup>10)</sup> <이생규장전>은 세조의 정변에 맞서 소극적으로 절의(節義)를 지킨 자신을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절의를 지키는 인간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욕구를 작품화 했다고 보았다.<sup>11)</sup> 그러나 여기에는 서로 다른 삶의 체험과 욕구가 어떻게 남녀의 애정이라는 동일한 소재에 의탁해서 표출되어야 했던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이 모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기본 명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작품은 모두 남녀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애정을 다루는 방식이 두 작품에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두 작품이 동일한 소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녀의 만남과 애정을 다루었다는 데에서 두 작품은 모두 김시습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가슴에 품고 살았던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73, p.62.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pp.125-139.

이월영, 『만복사저포기와 하생기우전의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120권, 국어국문학회, 1997, pp.195-196.

유권석,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해원의 구현 양상 연구』, 『어문론집』58집, 중앙어문학회, 2014, pp.239-240.

11) 설중환, 앞의 책, pp.139-153.

김시습은 5세의 어린 나이에 세종 임금을 만나 장래를 약속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러나 세조의 정변으로 단종 임금이 폐위되고 세종 임금 이래의 구질서가 무너지는 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며 김시습은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 그러나 김시습은 세종 임금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 <서민(敍悶)>이라는 시에서 김시습은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바꾸어 놓을 만큼 소중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sup>12)</sup> 세종 임금에게 받은 두터운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일생 동안 고생스런 삶을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남효온(南孝溫)에게 고백하기도 했다.<sup>13)</sup> 또한 그는 매양 달 밝은 밤이면 이소경(離騷經)을 읊으며 눈물을 흘렸고, 술이 취하면 세종 임금을 부르며 슬피 울었다고 한다.<sup>14)</sup> 이러한 사실들은 김시습이 세종 임금을 만나고 난 후 평생 세종 임금을 가슴에 품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점에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의 사랑 이야기는 김시습이 평생 그리워하며 가슴에 품고 살았던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세종 임금과 만났던 김시습 자신의 체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복사저포기>가 외부 세계의 개입이 없는 두 사람만의 내밀한 관계를 다룸으로써 김시습과 세종 임금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내밀한 사랑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비해, <이생규장전>은 외부 세계의 개입으로 작중인물들의 사랑이 고통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다룸으로써 김시습과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사회적 질곡 속에서 비극적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김시습 자신의 체험을 작품화 한 것이라고 할

---

12) 김시습, 『매월당집』 권14.

13) 김시습, 『유적수보』, 『매월당집부록』 권1.

14) 김시습, 『매월당집부록』 권1.

수 있다.

그런데 <이생규장전>이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사회적 관계에서 비극적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김시습 자신의 체험을 작품화 한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회를 향해 던지는 비판의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내면의 목소리였을까? 이 문제는 <이생규장전>, 나아가 『금오신화』가 어떠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는가 하는 창작의 목적이나 동기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 II. 시에 나타난 사회의식

송도(松都)의 낙타교(駱駝橋) 옆에 살고 있던 이생과 선죽리(善竹里)에 살던 최소저는 빼어난 재주와 외모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생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최소저와 연서(戀書)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담장을 넘어 최소저의 집으로 들어가고 최소저는 이생을 안내해서 자기의 방으로 데려 간다.

최소저는 먼저 문방기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방으로 이생을 안내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작품은 최소저의 방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벽에 걸려 있는 두 종류의 그림과 시(詩)를 소개하고 있다. 최소저의 방 한쪽 벽에는 <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 한 폭과 <유황고목도(幽篁古木圖)> 한 폭, 모두 두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림마다 시가 쓰여 있었다. 또 다른 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그린 네 폭의 시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를 위해 특별하게 지은 별당이라 하더라도 방 하나에 여섯

점의 그림과 시가 걸려 있는 광경은 부자연스럽고 산만하다. 방 하나에 너무나 많은 그림과 시가 걸려 있어 공간 배치에서 균형 감각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생규장전>에는 여섯 폭의 그림과 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인용하여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 공간 구성의 부자연스러움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림과 시를 빌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자연스러움은 공간 배치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과 시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난 뒤 작품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곧 바로 이생과 최소저가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가연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림과 시의 내용과 의미가 인물들의 행위와 의미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과 시를 소개하는 부분과 가연을 맺는 인물들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져 서술되고 있을 뿐 두 사건을 의미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행위의 의미와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림과 시를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최소저의 방에 걸려 있는 그림과 시를 자세하고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미숙함의 결과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배치일까? 이런 점에서 최소저의 방에 걸려 있는 그림과 시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이생규장전>이 어떤 작품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강첩장도>부터 살펴보자. <연강첩장도>는 중국 송나라 때의 왕선(王詵)이 그린 것으로서 이후 청나라 때까지 많은 작가들이 <연강첩장도>의 이름으로 문인산수화의 전통을 이어가게 한 작품이다. 왕선은 이 작품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호북성(湖北省)으로 유배되었던 자신의

경험과 감흥을 담아내었다. 왕선이 <연강첩장도>에 사회적으로 좌절했던 시기의 사회의식을 담아내었다는 것은 왕선과 절친한 사이였던 소식(蘇軾)이 <연강첩장도>를 보고 지은 시 <서왕정국소장연강첩장도(書王定國所藏煙江疊嶂圖)>와 이에 화답했던 왕선의 화답시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강첩장도>는 왕선 이후 그림 속에 사회적으로 좌절한 사람의 사회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sup>15)</sup>

최소저의 방에 걸려 있는 <연강첩장도>의 시에도 사회의식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붓 끝에 힘이 넘쳐서	何人筆端有餘力
이 강 위의 많은 산을 첩첩히도 그렸구나	寫此江心千疊山
웅장하구나 삼만 장의 방호산이여	壯哉方壺三萬丈
아득한 구름 사이에서 반쯤이나 솟았구나	半出縹緲煙雲間
멀고 아득한 산세는 몇 백리에 뻗어있고	遠勢微茫幾百里
가까이는 높이 솟아 고동처럼 솟아있어	近見峯崔青螺鬢
망망한 푸른 물은 먼 하늘에 닿아 있네	滄波淼淼浮遠空
날 저물어 바라보니 고향 생각 그지없어	日暮遙望愁鄉關
그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여	對此令人意蕭索
상강의 비바람에 배 띄운 듯하구나	疑泛湘江風雨灣 <sup>16)</sup>

<연강첩장도>에 있는 시이다. 방호산(方壺山)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풍

15) <연강첩장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했음.

박은화, 「왕선의 연강첩장도와 문인산수화의 전통」,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03.9, pp.57-84.

16) 본고에서 <이생규장전>은 아래 문헌의 자료를 대본으로 사용하며, 앞으로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매월당외집』 권 1(『매월당전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광을 그린 그림을 보고 지은 시이다. 먼저 시인은 화가(畫家)가 방호산을 중심으로 산과 강, 하늘과 구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화폭에 한 폭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놓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시인은 쓸쓸한 감회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쓸쓸함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과 맞서다가 조정에서 추방되어 떡라수(汨羅水)에 투신하여 자살했던 굴원(屈原)의 절망과 애달픈 심정에 비유하고 있다. 최소저의 방에 걸려 있는 <연강첩장도>의 시가 굴원을 끌어와서 사회적으로 좌절된 사람의 절망과 애달픔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강첩장도>에 이어 <유황고목도>의 시에도 사회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쓸쓸한 대나무밭의 바람소리 할 말이 있는 듯하고	幽篁蕭颯如有聲
기괴한 고목은 옛 정을 품은 듯하네	古木偃蹇如有情
구부러져 엷힌 뿌리에는 이끼 담뱃 끼어 있고	狂根盤屈惹莓苔
께이고 어그리진 늙은 가지는 바람 천둥 꺾어왔네	老幹天矯排風雷
무궁한 조화 자취 가슴 속에 지녀 있어	胸中自有造化窟
기묘한 경지를 누구에게 말을 할까	妙處豈與傍人說
위언과 여가도 이미 세상을 뚫으니	韋偃與可已爲鬼
천기를 누설한들 몇이나 알아볼까	漏泄天機知有幾
개인 창 우두커니 말없이 마주하고	晴窓嗒然淡相對
신기한 필법 바라보며 삼매경에 빠져본다	愛看幻墨神三昧

위의 시는 <유황고목도>에 있는 것이다. <연강첩장도>가 원경(遠景)을 담아낸 것이라면, <유황고목도>는 근경(近景)의 사물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시인은 대나무밭과 고목을 그린 그림에서 삶의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다. 시인은 대나무밭에 부는 바람과 기괴하게 엷혀있는 고목이 무

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나무와 고목은 바람과 우레를 견디며 긴 세월을 살아왔던 예사롭지 않은 삶의 이력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은 풍상을 견디며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무궁한 조화를 가슴 속에 지니고 천기(天機)를 읽어 삶의 이치에 두루 통달한 기묘한 경지에 도달해 있는 존재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세상에서 대나무와 고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만의 고독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자신만의 고독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시인은 창(窓)을 마주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림 속의 의미를 생각하며 깊은 상념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연강첩장도>와 <유황고목도>는 세상과의 관계가 틀어진 데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통해 삶에 대해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포부를 갖고 있다. 또한 자기의 능력을 펼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꿈이 좌절되고, 탁월한 능력과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자신만의 고독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비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세상에서라면 사람들의 꿈이 실현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은 이상으로만 존재하고, 비정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접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만의 쓸쓸한 노래를 부르며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과 부딪쳐 상처를 받고 좌절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

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삶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삶의 바른 이치란 존재하는 것인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에 대해 던지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깊은 상념의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근처에서부터 무너지며 새로운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던 시인이 창을 마주 대하고 깊은 상념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는 까닭이다.

최소저의 방 다른 한 쪽 벽에는 사계절의 경치를 그린 네 폭의 시가 걸려 있었다. 첫째 폭의 시는 살구꽃이 피고 나비가 날며 원앙새가 춤추는 모습을 두루 보여준 뒤 무루 익은 봄날의 경치를 보며 주렴을 걷고 봄꽃을 쳐다보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sup>17)</sup> 화창한 봄날을 맞아 주렴을 걷고 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여임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폭의 시는 봄이 지나서 보리가 이삭을 배고 석류꽃이 피며 제비가 찾아와 깃드는 여름날의 풍요로운 경치를 묘사한 뒤 붉은 치마를 짓고 있는 여인을 등장시키며<sup>18)</sup> 시집가는 처녀의 설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뒤 이어 여인은 살구를 손에 들고 피꼬리를 희롱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물이 가득 찬 연못에서 목욕하는 노자새를 등장시켜 이 시간의 풍요로움과 충일감을 고조시키고 있다.<sup>19)</sup> 뒤 이어 시는 오후의 저녁 햇살이 비껴 있는 창가에서 나른함을 이기지 못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sup>20)</sup> 둘째 폭의 시가 시집 간 여인이

17) 春色深藏黃四家 ..... 輕揭珠簾看落花(李生窺牆傳)

18) 綠窓工女並刀響 擬試紅裙剪紫霞(李生窺牆傳)

19) 手拈青杏打鶯兒 ..... 荷葉已香池水滿 碧波深處浴鷓鴣(李生窺牆傳)

20) 懶慢不堪醒午夢 半窓斜日欲西曛(李生窺牆傳)

님과 함께 풍요롭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며 나른한 행복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폭의 시에는 시상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따스하고 풍요로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며 쌀쌀하게 부는 가을바람과 북쪽으로 돌아가는 기러기 그리고 떨어지는 오동잎을 등장시켜 쓸쓸하고 스산한 이별의 정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인은 가을별레 소리도 구슬픈 침상 위에서 홀로 눈물짓고 있다.<sup>21)</sup> 사랑하는 님이 머나먼 변방의 싸움터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여인은 귀뚜라미 소리를 벗 삼아 홀로 지내며 깊은 시름을 이기지 못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sup>22)</sup> 셋째 폭의 시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여인이 이별의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폭의 시에 나타난 분위기는 더욱 차갑고 가혹하다. 밤 서리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눈 섞인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쳐 오는 겨울을 맞아 여인은 님 그리는 상사몽에 밤을 지낸다.<sup>23)</sup> 여인은 부끄러움을 머금고 말없이 한 쌍의 원앙새를 수놓으며 다시 님을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져 보기도 하지만, 살을 에는 서릿바람이 숲을 몰아치고 까마귀가 울고 가는 밤을 맞아 숙절없이 등불 앞에서 눈물 흘리며 혼자만의 고난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sup>24)</sup>

이렇게 볼 때 <사계도(四季圖)>의 시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을 꽃피우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보내다가 의외의 이별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21) 牀下百蟲鳴唧唧 牀上佳人珠淚滴(李生窺牆傳)

22) 舊愁新恨不能禁 況聞蟋蟀鳴洞房(李生窺牆傳)

23) 林葉頻驚半夜霜 回風飄雪入長廊 ..... 無端一夜相思夢(李生窺牆傳)

24) 剪剪霜風掠北林 寒烏啼月正關心 燈前爲有思人淚 滴在穿絲小控針(李生窺牆傳)

사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표현하고 있다. 결국 <사계도(四季圖)>의 시는 실패로 끝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강침장도>와 <유황고목도>의 시, 그리고 <사계도>의 시를 연결해 보면 최소저의 방에 걸려 있는 여섯 폭의 그림과 시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실패로 끝난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랑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으며 삶의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생과 최소저가 처음 만나 가연을 맺는 대목에서 최소저의 방에 있는 그림과 시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이생과 최소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가 하는 것을 작품의 처음 부분에 복선으로 깔아서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사랑의 사회적 조건

송도에 사는 이생은 빼어난 풍채와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었고, 최소저도 아름다운 용모와 빼어난 재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용모와 재주를 한 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sup>25)</sup> 칭찬을 할 정도였다. 이생은 국학(國學)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제나 최소저의 집 앞을 지나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최소저의 집 북쪽 담장 밖에 심어 놓은 수양버들 아래에서 쉬어가곤 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이생과 최소저의 재주와 용모가 빼어나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었고,

---

25) 才色若可餐 可以療飢腸(李生窺牆傳)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용모와 재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이생이 늘 최소저의 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만나기 이전부터 최소저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과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담은 시를 화답하고, 드디어 그날 저녁 이생은 최소저의 집 담장을 넘어 최소저와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바로 서로에게 이끌릴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재주와 용모를 익히 들으며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이생과 최소저 사이에 가로 놓인 담장은 청춘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에 두 사람을 가로 막고 있던 사회적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생이 최소저의 집 담장을 넘어서 최소저를 만났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 만남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사회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담장을 넘어 최소저를 만난 뒤 이생은 만남의 기쁨을 노래하는 최소저의 시에 대해 “이 다음 어찌다가 봄소식이 새나가면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고<sup>26)</sup> 화답하는가 하면, “좋은 일 끝나기도 전에 수심이 따르리니 새로운 곡조를 지어 앵무새를 가르치지 마오.”라고<sup>27)</sup> 화답한다. 최소저의 용모와 재주에 이끌려 가연을 맺었음에도 이생은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생이 드러내고 있는 불안감의 실체는 그

26) 他時漏泄春消息 風雨無情亦可憐(李生窺牆傳)

27) 勝事未了愁心隨 莫製新詞教鸚鵡(李生窺牆傳)

가 최소저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 떠나면서 한 말을 통해서 밝혀진다.

옛 성인이 말씀하기를 ‘부모님이 계시면 놀러 나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드려야 한다’ 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집을 나온 지 삼 일이 지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계실 것이니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sup>28)</sup>

이생은 부모님이 모르게 최소저와 만난 자신의 행위가 성인이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와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자식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만남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생이 갖고 있던 불안감의 실체였던 것이다.

이생이 가졌던 불안감은 그대로 적중된다.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생을 꾸짖어 울주(蔚州)의 농장으로 내려 보내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한다. 이생의 아버지가 개입하며 이생과 최소저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의 말씀을 배우려 함인데 요사이에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나? 반드시 경박한 놈이 남의 집 담을 넘어 처녀를 엿보는 짓을 배워서 하는 것이겠지. 이 일이 탄로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책망할 것이요, 그 처녀도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반드시 네 미친 행동 때문에 가문이 누를 입게 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너는 속히 영남으로 내려가서 노복들을 데리고 농사 감독이나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sup>29)</sup>

28) 先聖有言 父母在 遊必有方 而今我定省已過三日 親必倚閭而望 非人子之道也(李生窺牆傳).

29) 汝朝出而暮還者 將以學先聖仁義之格言 昏出而曉還 當爲何事 必作輕薄子 踰垣牆 折樹檀耳 事如彰露 人皆譏我教子之不嚴 而如其女 定是高門右族 則必以爾之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울주의 농장으로 보내며 한 말이다. 이생의 아버지는 성인의 말씀을 들어 담장을 넘어 들어가 남의 집 처녀를 만나는 이생의 행위가 경박한 자의 천박한 행동이라고 꾸짖고 있다. 성인의 말씀은 사회의 규범적 가치로 존중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규범적 질서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생의 아버지는 담장을 넘어 여자를 만나는 이생의 행위가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박하다고 꾸짖은 것이고, 그 결과 이생이 최소저를 만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범적 질서가 부과하는 사회의 금기체계에 부딪혀 이생과 최소저의 만남이 파국에 이른 것이다.

이생과 헤어진 뒤 최소저는 상심하여 병이 들었고, 최소저의 부모가 딸의 변화를 이상히 여겨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생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최소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생과의 관계를 실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부모에게 말씀드린다.

가만히 생각하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시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 『시경』의 주남(周南)편에도 나와 있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것은 『역경』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 저의 연약한 몸으로 괴로움을 참으며 홀로 살아가려니 사모하는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아픈 상처는 날로 더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마땅히 이생과 저승에서라도 함께 지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에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sup>30)</sup>

狂狡 穢彼門戶 獲戾人家 其事不小 速去嶺南 率奴隸監農 勿得復還(李生窺牆傳)

30) 竊念 男女相感 人情至重 是以 標梅迨吉 咏於周南 咸腓之凶 戒於義易 .... 以眇眇之弱軀 忍悄悄之獨處 情念 日深 沈痾日篤 濱於死地 .... 當與李生 重遊黃壤之下 誓不登他門也(李生窺牆傳)

최소저는 『시경』의 주남편을 들어 자기의 행위를 변호하고, 『역경』을 들어 자기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주남(周南)편의 것으로 소개된 표매(標梅)의 시는 소남(召南)편의 것을 잘못 알고 쓴 것으로, 나이가 찬 처녀가 혼기를 놓치게 될까 걱정하며 배필이 될 사람을 애타게 찾는 심정을 매실(梅實)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이다. 최소저가 『시경』을 들어 남녀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성인도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로써 이생을 만난 자기의 행위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소저는 『역경』의 내용을 들어 이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의 저작물인 경전의 권위를 끌어와서 이생과의 만남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로 재단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저의 부모는 비로소 사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생의 집에 매파를 보내어 청혼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생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몇 차례에 걸쳐 청혼을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이생과 최소저의 결혼을 승낙한다. 이생의 아버지는 한미한 신흥사류의 자제와 문벌귀족 가문의 딸 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문벌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sup>31)</sup> 또는 이생의 부도덕한 행위를 선비적 자존심이나 엄격성으로 용납할 수 없어서<sup>32)</sup> 청혼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벌이 다른 가문 사이의 통혼을 꺼리는 것이나 이생의 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교적 도덕관념은 모두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규범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생의 부친이 몇 차례에 걸쳐 청혼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p.96.

32) 이상구, 앞의 글, p.327.

그러나 이생에 대한 최소저의 사랑이 너무도 굳건하기 때문에 최소저의 부친은 거듭해서 칭혼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생의 부친도 칭혼을 받아들인다. 이생에 대한 최소저의 사랑이 규범적 질서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어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던 것이다. 사랑의 열정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디어 이생과 최소저는 어른들의 반대를 넘어서 다시 만나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홍건적(紅巾賊)이 쳐들어와 임금이 복주(福州)로 피난을 가는 등 사회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국가적 변란이 일어난다. 이생은 가족을 데리고 산골에 숨었는데 한 도적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겨우 달아났지만 최소저는 도적에 맞서 자신의 정조를 지키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외적이 쳐들어와 사회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국가적 변란은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임금은 홀로 피난을 가버림으로써 국가권력은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 경우 개인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이생처럼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저처럼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의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최소저는 홍건적에 맞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절개를 지키려 했다. 홍건적이 고려에 쳐들어온 것은 고려의 무도함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홍건적은 아무런 대의와 명분도 없이 평화로운 고려에 쳐들어와 약탈과 파괴를 일삼으며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불의의 세력이었다. 그러므로 최소저가 죽음으로써 홍건적에 맞선 것은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홍건적은 최소저에게 절개의 훼손을 강요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

왔던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 피어있는 담장을 엿보자 저는 스스로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구슬을 바쳤습니다.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날 때에는 정이 백 년을 넘쳤습니다.<sup>33)</sup>

최소저는 이생을 만나며 스스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고, 평생의 기쁨으로 삼아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생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저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 흥건적에 맞선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키려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임을 당해 살이 찢어져 들판에 버려지는 것이었다. 불의한 세력에 맞서 절개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키는 일은 최소저에게 죽음과도 맞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결과는 너무도 처참하고 안타까웠다.

살아남은 자의 형편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생은 황량한 들판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이 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다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최소저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sup>34)</sup>

살아서 돌아온 이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화에 불타서 황폐해지고

---

33) 然而一窺紅杏之牆 自獻碧海之珠 花前一笑 恩結平生 帳裏重遊 情愈百年(李生窺牆傳)

34) 生窺于荒野 僅保餘軀 聞賊已滅 遂尋父母舊居 其家已爲兵火所焚 又至女家 廊廡荒涼 鼠唧鳥喧(李生窺牆傳)

취와 새들만 지저귀고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집뿐이었다. 이생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아무 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현실 앞에서 넋을 잃고 서있을 뿐이었다.

홍건적의 침략으로 이생과 최소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것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회적 폭력과 횡포에 개인의 삶이 짓밟히고 있는 어지러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 것이 이생과 최소저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을 유린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이생과 최소저는 자신들의 삶이 파괴되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침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몸뚱이가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쇠잔한 몸이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다만 애끓는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이고, 해골은 들판에 버려지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옛 날의 즐거움이 이제는 원통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sup>35)</sup>

최소저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정조를 지키려 한 것이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이생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이생과 함께 했던 시간이 최소저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폭력에

35) 終不委身於豺虎 自取磔肉於泥沙 ..... 義重命輕 幸殘軀之免辱 誰憐寸寸之灰心 徒結斷斷之腐腸 骨骸暴野 肝膽塗地 細料昔時之歡娛 適爲當日之愁冤 今則鄒律已吹於幽谷 倩女再返於陽間(李生窺牆傳)

맞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서 이생과 헤어져야만 하는 원통함이 풀이지 않아서 환신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의한 세력이 저지르는 사회적 폭력에 자신들의 삶이 파괴되고 이생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환신으로라도 돌아왔다는 것이다. 사회의 폭력에 맞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 했던 간절한 열망이 죽음마저도 넘어서게 할 정도로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저는 또한 자신이 환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천제(天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생과의 연분이 끝나지 않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환란을 당했기 때문에 천제가 자기를 환신으로 보내주었다고 했다.<sup>36)</sup> 하늘도 불의한 세력이 저지르는 사회적 폭력으로 개인들의 무죄한 삶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들의 무죄한 삶이 파괴되는 것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제는 최소저를 이생에게 다시 보내며 하늘의 정의는 살아있어서 사회적 불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이생과 최소저는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만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생은 최소저와 다시 만난 후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두문불출하며 항상 최소저와 함께 지냈다고 했다.<sup>37)</sup> 죽음으로 인한 단절을 넘어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상과 격리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만남의 밀도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최소저는 이생에게 죽은 사람이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승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생에게 참으로 뜻밖의 말이었다. 하늘의 정의를

36) 天帝以妾與生 緣分未斷 又無罪障 假以幻體 與生暫割愁腸(李生窺牆傳)

37) 生自是以後 懶於人事 雖親戚賓客賀弔 杜門不出 常與崔氏(李生窺牆傳)

내세워 최소저를 보내주었던 하늘이 이번에는 하늘의 질서를 내세워 거꾸로 최소저를 데려가려 하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최소저를 보낸 것은 사회의 불의에 맞서 하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늘의 정의이고 질서였다. 그런데 하늘은 최소저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생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하늘은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폭력으로 최소저가 죽은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최소저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의 정의를 내세우며 부정했던 사회적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자기모순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거짓이고 허구가 된다. 최소저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불의의 세력이 폭력으로 개인을 유린하는 현실의 질서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생은 최소저와 다시 만난 후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두문불출하며 최소저와 함께 지냈다고 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죽음을 넘어 다시 만나며 만남의 밀도를 높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현실과 유리되어진 비현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하늘의 정의가 비현실의 세계에서 관념적이며 이론적으로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면서 불의의 세력이 폭력으로 개인을 유린하는 현실의 질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고, 하늘의 정의는 비현실의 공간에서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면, 하늘에 대한 인간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된다.

하늘의 질서를 어길 수 없어 마침내 최소저가 저승으로 떠난 후 이생은 최소저를 극진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었다. 최소저를 그리워하다가 자기를 죽여 최소저를 따라갔다는 것이다. 최소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반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생과 최소저가 헤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최소저가 흥건적에 맞서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생이 최소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반발한 것은 불의의 세력이 폭력으로 개인을 유린하는 잘못된 현실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정의는 비현실의 공간에서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불의의 세력이 폭력으로 개인을 유린하는 현실을 보고도 침묵하고 방조하는 하늘에도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생과 최소저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그래서 비극적으로 종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의 열정은 규범적 질서가 부과하는 사회적 금기체계를 넘어서는 힘이 있고, 사회적 폭력에 맞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키려는 결연한 용기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두 사람의 사랑은 삶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생은 최소저와 헤어진 뒤 최소저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었다고 했다.<sup>38)</sup> 최소저에 대한 그리움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움이라는 낭만성의 표피를 걷어내면 이생의 죽음은 삶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최소저를 생각할 때마다 이생은 최소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지러운 현실과 이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하늘에 대해 반발하며 삶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고, 이것이 가슴에 울결되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생의 죽음은 그가 삶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

38) 生亦以追念之故 得病數月而卒(李生窺牆傳)

알려 준다. 불의한 세력이 폭력으로 개인의 삶을 유린하는 까닭은 무엇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정의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늘의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이고, 삶의 바른 이치란 존재하는 것인가? 이처럼 <이생규장전>은 <연강첩장도>와 <유황고목도> 그리고 <사계도>의 시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비극적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으며 삶의 문제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작가의식

비극적으로 끝난 사랑을 통해 사랑의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으며 인간과 사회적 삶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생규장전>은 그 자체로도 완결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금오신화』가 서로 다른 다섯 편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놓은 작품집이 아니라, 다섯 작품들을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드러내는 한 편의 소설로 창작된 것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네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볼 때 <이생규장전>이 『금오신화』의 한 작품으로 편제되어 있는 보다 깊은 의미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다른 작품과의 관계의 망 속에서 <이생규장전>의 의미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생규장전>은 세 번에 걸쳐 반복해서 나타나는 만남과 헤어짐의 양상을 통해 실패로 끝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렇다면 김시습이 드러내려 했던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란 무엇

이었을까?

이생과 최소저는 한 마을에 살며 사람들로부터 서로의 용모와 재주에 대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키워왔고, 이 때문에 서로에게 이끌려 만나게 되었다.

허명이 자자하게 오르자 정승 허조(許稠)께서 집으로 저를 찾아와 즉시 글자를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老)자로 시를 지어보아라”고 하므로 곧 응답하여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라고 했습니다. 허 정승이 무릎을 치며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녀석이 신동이구나”라고 하니 비로소 진신(縉紳)들이 알고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영묘께서도 들으시고 대언사에 부르라 명하시고 지신사 박이창에게 말씀하여 허실(虛實)과 능부(能否)를 묻게 하였습니다.<sup>39)</sup>

위의 인용문은 김시습이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세종 임금을 만나게 된 경위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글이다. 세종 임금께서 사람들이 김시습의 재주에 대해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재주에 대해 호기심과 애정을 키워가다가 마침내 김시습을 불러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과 애정을 키워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에게 이끌려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생과 최소저가 만나게 된 동기와 경위가 김시습과 세종 임금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생과 최소저는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부과하는 금기체계를 어겼다고 하여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헤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생에 대한 최소저의 사랑의 열정이 규범적 질서의 금기체계를 넘어서게 해 두 사람은

39) 虛名騰籍 政丞許稠 到廬而訪僕 卽呼字曰 余老矣 老字作句 僕卽應曰 老木開花心不老 許便擊節嘆訝喞喞曰 此所謂神童也 始縉紳知名屢訪矣 英廟聞而召于代言司 知申事朴以昌 傳旨問虛實能否(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사랑의 열정으로 극복하고 만남에 이르는 과정 또한 김시습과 세종 임금의 만남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종 임금은 김시습의 천재성을 시험해 보고 돌려보내며 “친히 만나보고 싶지만 사람들이 듣고 놀랄까 걱정되니 집으로 돌려보내 잘 기르라”고<sup>40)</sup> 했다. 세종 임금이 김시습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비난을 넘어서야 했었고, 이 때문에 김시습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건국하며 신홍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의 배타적 폐쇄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던 사회적 상황에서,<sup>41)</sup> 한 나라의 임금이 한미한 무반 출신 집안의 5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만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종 임금이 조심스럽게 행동했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층 사대부들이 주도하던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세종 임금과 김시습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 임금은 김시습을 불러 천재성을 시험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학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장차 나라에서 크게 쓰겠다는 약속까지 했다.<sup>42)</sup> 세종 임금이 김시습과의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한 것이었다. 김시습의

40) 啓傳旨曰 欲親引見 恐駭人聽 宜還授家 親緝晦教養至勤(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41) 김시습은 한미한 무반 집안 출신이었고, 조선전기는 신홍사대부를 중심으로 지배층의 폐쇄성이 강화되어가고 있던 시기였다. 조선전기의 사회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했다.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호, 한국사연구회, 1970, pp.70-85.

이태진, 『서얼차대고』, 『역사학보』27권, 역사학회, 1965, pp.65-104.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77, pp.442-443.

42) 莊憲大王聞之 召致承政院試以詩 果捷而佳 下教曰 … 待其學成 將大用(이이, <김시습전>, 『매월당집』).

천재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규범적 질서의 금기체계를 넘어서는 힘이 되었고, 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넘어서 두 번째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생과 최소저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던 것도 잠시일 뿐, 두 사람은 흥건적이 쳐들어와서 사회적 폭력에 의해 개인들의 삶이 유린되는 국가적 변란을 맞아 다시 헤어져야 했다. 최소저가 흥건적에 맞서 정절을 지키려다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다.

김시습의 생애에서 사회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국가적 변란이 되었던 사건, 그래서 세종 임금과 다시 만나기로 했던 약속도 무참하게 깨뜨려버렸던 사건은 곧 세조의 정변이었다. 세조의 정변은 흥건적의 침입처럼 사회의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며 폭력으로 개인의 삶을 유린해버린 사건이었다. 그리고 세조의 정변은 폭력을 앞세워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건이었다.

세조의 정변은 세종 임금과의 만남 이후 학업에 열중하며 다시 만날 것을 꿈꾸고 있던 김시습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세조는 집현전(集賢殿)을 혁파하고 경연(經筵)을 정지시키는 등 유학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추구하려 했던 세종 이래의 전통을 거부하는가 하면 정변의 중심 세력이었던 종친과 공신집단을 중심으로 지배계층을 채워나가며<sup>43)</sup> 세종 임금 이래의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이런 점에서 세조의 정변은 김시습에게 학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장차 나라에서 크게 쓰겠다고 했던 세종 임금의 약속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고, 세종 임금의 왕통을 이어받은 단종을 폐위 시킴으로써 세종 임금과의 모든 관계도 단절할 것을 강요하는 사건이었다. 세종 임금에게 두터운 은혜를 입었던 김시습으로서는 이러한 세조 정권의

43) 김태영, 『조선초기 세조 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87권, 한국사연구회, 1994, pp.119-144.

폭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세종 임금에 대한 절의를 저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저가 홍건적에게 정절의 훼손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세조의 정변은 김시습에게 절의의 훼손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조의 정변으로 단종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모든 서책을 불사르고 발광하여 울부짖다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세상 밖으로 떠난다.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고 떠난 것은 세상에 대해 자기를 죽인 것이다. 최소저가 홍건적에 대해 죽음으로써 맞섰던 것처럼 김시습은 세상에 대해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세조의 정변에 맞섰던 것이다. 이생과 함께 했던 것이 최소저에게 가장 가치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처럼,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김시습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세종 임금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반발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시습이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진 것은 “절의를 표방하고 윤기(倫紀)를 붙들었다”<sup>44)</sup>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소저가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생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떠남으로써 이 세상에서 김시습과 세종 임금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폭력에 의해 자신들의 삶이 파괴되고 이생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최소저는 환신으로 되돌아왔다. 김시습 또한 세조의 정변으로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세종 임금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비현실의 세계에서라도 세종 임금을 만나기를 갈망했다.

① 송돈학(宋遯塾)경원(慶元)이 스스로 맹세하는 시를 지었는데 “살아서

44) 標節義 扶倫紀(이이, <김시습전>, 『매월당집』).

는 산 속 사람이 되고, 죽어서도 산 속 귀신이 되려네”라고 했다. 선생이 그 글을 보고 감격하여 서로 붙들고 소리 내어 울고는 채미가(採薇歌)를 부르며 영월을 바라보고 통곡했다.<sup>45)</sup>

② 천순 원년 정축에 김시습이 엄홍도와 그 밖의 몇 사람과 함께 단종의 제일(祭日)을 맞아 이 절에 어의(御衣)를 진설하고 북향하여 통곡하였다.<sup>46)</sup>

인용문 ①과 ②는 김시습이 세조의 정변으로 폐위되어 죽임을 당한 단종을 추모하며 단종의 죽음을 통분히 여겨 슬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종은 세종 임금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임금이다. 인용문 ①과 ②의 사실은 김시습이 세조의 정변으로 세종 임금 이래 이어져 왔던 역사의 정통성이 단절된 것을 통분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조의 정변이라는 사회적 폭력으로 세종임금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 임금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김시습은 매양 달 밝은 밤이면 이소경을 읊으며 울고, 술을 마시면 세종 임금을 찾으며 눈물을 흘리는 등<sup>47)</sup> 일생 동안 세종 임금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것은 김시습이 세조의 정변으로 자신과 세종 임금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비현실의 공간, 꿈의 세계에서라도 세종 임금을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소저가 환신으로 이생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세종과의

45) 宋遜愨慶元 作自誓詩有 生爲山中人 死爲山中鬼 先生見之有感 相扶呼泣 因歌採薇 望寧越痛哭(『유적수보』, 『매월당집부록』 권1).

46) 天順元年丁丑 金梅月時習 與嚴興道及同人 值上王諱辰則 本寺陳御衣 向北號痛(채동양, 『초혼각중수기』, 『매월당집부록』 권2).

47) 有沙彌 喉音清楚 能出商聲 浪吟長詠 遺響裊空 悽有餘感 每值皓月朗然 中宵獨坐 令沙彌 詠離騷經一過 輒泣下沾衿 性嗜酒 飲醉必曰 不見我英陵否 流涕悲甚(김시습, 『매월당집부록』 권1).

관계가 단절된 후 꿈에서라도 세종 임금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김시습의 간절한 원망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저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 환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 해 볼 수 없는 사회적 변란을 겪으며 하늘의 정의가 살아있어서 불의의 세력이 저지르는 사회적 폭력을 제어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말도 없다 그러나 사시(四時)가 운행하고, 백물(百物)이 화생하여 쉬지 않고, 추위와 더위가 바뀌고, 밤과 낮이 나누어져 백성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적의(適宜)함을 내려 주니 하늘의 덕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서로움을 내려 복을 주는 것이 두텁고,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려 악을 징벌하는 것이 삼엄하다.<sup>48)</sup>

하늘에 대해 김시습이 한 말이다. 하늘은 우주와 만물을 관장하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여 착한 자에게는 복을,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려 준다고 하고 있다. 김시습은 하늘이 인간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하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이 최소저를 데려가 버림으로써 작품 속에서 하늘의 정의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불의한 폭력이 판을 치는 현실의 질서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었다. 김시습을 둘러싸고 있던 현실 세계의 질서 또한 이와 꼭 같이 전개되고 있었다. 세조는 세종 임금 때의 구신(舊臣)인

48) 況上天之載 無聲無臭無言 而四時行 百物生不息 而寒暑代 晝夜分 降衷于下民 則帝可知矣 .... 作善 降祥錫福厚矣 作惡 降殃誅惡嚴矣(김시습, 『천형제일』, 『매월당집』 권17, 잡지).

김중서 등을 죽이고 폭력으로 왕권을 탈취했다. 그리고 단종 임금을 폐위 시켜 죽임으로써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왕권을 탈취하는 패역의 역사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의에 맞섰던 사람들은 폭력에 유린되어 버려졌고, 세조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되어 과거를 일소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세상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의 정의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현실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생과 최소저가 하늘의 도움으로 다시 만난 뒤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은 김시습이 불의 앞에서 하늘이 침묵하는 참담한 현실을 묵도하고 하늘의 정의는 비현실의 공간에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을 뿐이고 현실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은 현실의 질서에 대해 반발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하늘에 대해서도 반발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과 하늘에 대한 깊은 절망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생이 최소저와 헤어져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하늘에 대해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반발한 것은 불의가 지배하는 잘못된 현실과 이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하늘 모두에 대해 반발하며 절망했던 김시습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생과 최소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세조의 정변으로 비극적으로 종결되며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김시습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시습은 자신의 천재성을 사랑하는 세종 임금의 열정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던 힘이 되었고, 세종 임금과의 관계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열정이 자기를 희생하여 불의의 세력에 맞서는 용기로

표출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소저의 죽음을 통해서도 세종 임금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세상에 대해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맞섰던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 하려 했고, 이생의 죽음을 통해서도 불의가 지배하는 잘못된 현실세계와 이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하늘 모두에 대해 반발하며 절망하고 세상을 등지고 떠났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생이 최소저와 헤어진 뒤 삶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던 것처럼, 김시습 또한 사회적 폭력으로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으며 삶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생과 최소저의 비극적 사랑이 삶의 문제에 대해 던지게 했던 심각한 물음은 현실과 하늘 모두에 대해 반발하고 세상을 등지고 떠나며 김시습이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윽고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 어지러워질 때에 세종과 문종께서 잇달아 돌아가시고, 세조 초년에는 옛 친구와 교목세가의 사람들이 모두 귀신의 명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교가 크게 일어나 유교가 쇠락하게 되니 제 뜻이 황량해져서 드디어 머리를 깎은 이들과 벗하여 산수에서 놀게 되었습니다.<sup>49)</sup>

인용문에서 김시습은 자신이 세조의 정변으로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세조의 정변 이후 이교(異敎)가 크게 일어나는 등 세종 이래의 구질서가 일거에 무너지고 사회적 폭력에 의해

49) 既而心事相違 顛沛之際 英廟顯廟 相繼賓天 光廟之初 故舊喬木 盡爲鬼簿 而復異教大興 斯文陵夷 僕之志已荒涼矣 遂伴髡者遊山水(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자신의 삶이 비틀리고 파괴되는 혼란을 겪으며, 삶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이 비극적으로 종결되었던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회고해 보며, 스스로에게 개인의 삶이 왜 사회적 폭력에 의해 유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의 행적은 그 자체로 사회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생규장전>에서 사회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 <이생규장전>은 사회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기보다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비극적으로 종결되기까지의 김시습 자신의 삶을 사회적 관계의 망 위에서 회고해 보며, 스스로에게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김시습이 현실적 불의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항만을 의식했을 뿐 민중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sup>50)</sup> <이생규장전>의 한계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 <이생규장전>은 사회를 향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의 부조리와 질곡을 문제 삼으려 한 작품이 아니라, 김시습이 자신의 체험을 회고하며 자신을 향해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독자들에게 사회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V. 맺음말

<이생규장전>은 이생과 최소저의 사랑을 통해 비극적으로 끝난 사랑의

---

50) 이상구, 앞의 글, p.341.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으며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순수한 사랑의 열정은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는 힘이었고, 사회적 폭력에 맞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키려는 결연한 용기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아가 사회의 불의한 세력에 의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어지러운 현실과 이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하늘에 대해 반발하며 삶의 바른 이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작가의식을 통해 살펴 본 <이생규장전>은 세조의 정변으로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비극적으로 종결되어 마침내 세상을 등지게 되었던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스스로에게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생과 최소저가 만나게 된 동기와 경위가 김시습과 세종 임금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사랑의 열정으로 극복하는 과정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불의의 세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회적 폭력에 대해 최소저가 절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맞서게 함으로써 세조의 정변에 맞서 세상에 대해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절개를 지키려 했던 김시습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불의한 세력에 의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어지러운 현실과 이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하늘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이생의 행위를 통해 세조의 정변으로 사회적 폭력이 개인의 삶을 유린하는 현실의 질서와 이것을 용인하는 하늘 모두에 대해 반발하고 중이 되어 세상을 등졌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극적으로 끝난 이생과 최소저의 사랑이 삶의 문제에 대해 던졌던 심각한 물음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며 김시습이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복사저포기>가 사랑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개되었던 내밀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생규장전>은 실패로 끝난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의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은 김시습의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웠던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남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내밀한 사랑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만복사저포기>는 만남을 사회적 관계의 망 위에서 다루는 <이생규장전>의 의미와 통합되어지며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김시습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와 양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다.

사랑의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으며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생규장전>은 그 자체로도 완결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시습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이생규장전>은 완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김시습은 <이생규장전>에서 세조의 정변으로 세상을 등지고 떠나며 삶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모습을 작품의 결말로 제시하기만 했을 뿐 아직 그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오신화』가 개별적으로 독립된 다섯 편의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단순한 작품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섯 편의 작품이 서로 어우러져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드러내는 한 편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생규장전>에서 제기되었던 삶에 대한 질문이 <이생규장전> 이후의 작품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작품 전개의 핵심적 축으로 기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어지는 다른 글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정식·이복자, 「이생규장전의 우의적 고찰」, 『인문과학논총』8집,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pp.4-8.
-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77.12, pp.442-443.
- 김위경, 「17세기 독서물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어문논총』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pp.241-244.
- 김일렬, 「금오신화의 작품구조」,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pp.19-21.
- 김창현, 「『금오신화』, 이생규장전의 비극성과 그 미학적 기제」, 『온지논총』28권, 온지학회, 2011, pp.162-164.
- 김태영, 「조선초기 세조 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87권, 한국사연구회, 1994, pp.119-144.
- 박은화, 「왕선의 연장침장도와 문인산수화의 전통」,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03.9, pp.57-84.
-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p.96.
- \_\_\_\_\_,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20권,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16-31.
- \_\_\_\_\_, 「이생규장전의 결혼과 절사(節死)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p.321.
-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231.
- 설성경,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pp.86-88.
-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pp.125-139.
- 유권석,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해원의 구현 양상 연구」, 『어문론집』58집, 중앙어문학회, 2014, pp.239-240.
- 이상구, 「이생규장전의 갈등구조와 작가의식」, 『어문론집』35집, 민족어문학회, 1996, pp.329-338.
-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호, 한국사연구회, 1970.3, pp.70-85.
- 이월영, 「만복사저포기와 하생기우전의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120권, 국어국문학회, 1997, pp.195-196.

이태진, 「서얼차대고」, 『역사학보』27권, 역사학회, 1965, pp.65-104.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 신아사, 1965, pp.604-605.

정학성,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작품세계와 전기 미학에 대한 재성찰」, 『고전문학연구』44권, 한국고전문학회, 2013, pp.254-263.

**Abstract**

The social conditions of love and the consciousness of a writer on  
<Yi-Sang-Gyu-Jang-Jeon(李生窺牆傳)>

Ahn, Chang-soo

<Yi-Sang-Gyu-Jang-Jeon(李生窺牆傳)> is a work to reveal the social meaning of Kim Si Seup(金時習) meeting with King Se Jong(世宗). So, I came to know that the motivation and details of Yi-sang(李生) meeting with Choi-sojeo(崔小姐), the main character was the same as the meaning of Kim Si Seup(金時習) meeting with King Se Jong(世宗). And the process to overcome the crisis that had been made by normative order of society with love is also same as well.

Not only that, <Yi-Sang-Gyu-Jang-Jeon(李生窺牆傳)> show that Kim-Si-Seup(金時習) own self that tried to keep his fidelity against the coup of Se-Jo(世祖) by killing himself on world through the attitude of Choi-sojeo(崔小姐) to try to keep her chastity by killing herself against the social violence. And I came to realize that the work reveals Kim Si Seup(金時習), his own self had resisted the order of the real world with social violence destroying a personal life and the heaven remaining silent about injustice.

Key Word : the social meaning, the normative order of society, fidelity, the social violence, the order of the real world

안창수

소속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 csahn@pusan.ac.kr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